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을 말합니다. 폭은 4m, 길이는 500m 정도의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쓸어지신 곳 14곳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길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길이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하여 그 길 좌우로 상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지난번 성도님들과 성지순례를 하며 이 길을 갈 때 저를 비롯해서 한 명씩 돌아 가면 십자가를 지고 찬송을 부르며 갔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지고 찬송을 부르며 가는 동안 주위의 가계가 보이지 않았고 호객 행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장소에서는 행진을 멈추고 그 장소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5번째와 6번째 장소가 생각납니다. 5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곳입니다. 자유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피곤하여 쓰러지신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몇 모르고 진 십자가이지만 후에 그것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위대한 일을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몬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자가 되었습니다(롬 16:13). 몇 모르고 아내를 교회에 픽업해드리고 예배 시간에는 파킹장에서 기다리시던 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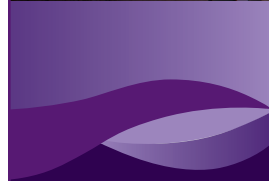
6번째 지점은 성 베로니카(Veronica)가 예수님께 수건을 드려 땀과 피범벅이 된 얼굴을 닦은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유물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여인은 12년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수건은 AD 707년 이후로 성 베드로 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위한 작은 일도 주님께서 이처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갈 6:17).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후 1:00
	주일 찬양 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 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일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미정(T.B.D)	친교실
Mommy & Me	미정(T.B.D)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오후 11: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VISION 2022
EVANGELISM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종려주일 주일 예배

제 31권 15호 주후 2022년 4월 10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145장, 461장		
기도	김광수집사	지재홍장로	김동환장로
성경봉독	마(Matt) 16:21-28		
찬양	글로리아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십자가를 지는 삶 김중훈목사		
성찬	집례자		
찬송	630장		
봉헌	다같이		
환영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4월 13일 오후 8:30

- 기도: 김신애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2선교회 헌신예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2-4/16)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임병설집사
- 2부: 정수영장로
- 3부: 박재우장로

예배 및 헌금 안내

-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성찬식:** 오늘 1-3부 예배시간에 있습니다.
 - **부활절 예배 안내(4월 17일)**
 - 뉴욕교협연합새벽예배: 오전 6시(본당)
 -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9시 30분(부활절칸타타), **3부 예배:** 11시(세레식, 부활절칸타타)
 - 부활절 절기헌금: \$35,000(부활절 헌금봉투 사용)
 -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까지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립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제직회:**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 **성금요기도회:** 4월 15일(금) 오후 8시 30분, 본당
-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헌금:** 1, 2, 3부 예배시간 전에 헌금함에
- **세례문답:** 4월 16일(토) 오후 7시 30분, 친교실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꽃:
 - 사랑의 식탁: 이찬용장로&김혜중권사(생일)

새가족

- 권태진 목사&황민옥사모(사랑선교회, Port Washington)

교우동정

- **이사:** 정미혜집사(Bayside)
- **한국방문:** 김상용집사&김정옥집사

행사예고

- 4/17(주일) 부활주일
- 4/20(수) 2남여선교회 헌신예배
- 4/27(수)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 4/29(금) 4월 목장예배

그 누가 문을 두드리려(계 3:14-22)

1.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소아시아 7교회중 가장 근심거리인 교회였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던 교회였습니다. 책망 받은 이유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하고 싶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형적으로 북쪽으로 히에라볼리와 남쪽으로 골로새를 사이에 두고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이 나오고,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데 그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 흐르는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양모산업이 활발했고, 상업의 발달로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과대학과 병원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매우 부요하고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는 편리한 세속도시 속에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안주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영적 자만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2. 주님의 권면(해결 방법)

- 1)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요하게 하라.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벧전 1:7).
- 2)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의의 옷을 가지라.
- 3)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뜨라(고전 2:10-14).

3. 주님의 약속

- 1)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계 3:20).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라는 흑인영가를 따라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HOLMAN HUNTER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에는 문고리가 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내가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먹는 교제가 회복됩니다. 문을 여는 방법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계 3:19).
- 2)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승리를 주님의 승리로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하지않으셨던 엄청난 약속입니다. 지금 미지근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결론]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지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
- CSN (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 K-Radio AM 1660 (라디오): 매주 수요일 오후 12:54 (목회자 칼럼)